

# 남북한 중등지리 교과서의 비교 연구

김 재 완\*

## The Comparative Study of Geography Textbooks of Secondary and High School in South and North Korea.

Jae-Wan Kim\*

**요약** : 해방 이후 남북한 지리 교과서는 정치체제의 차이에 기인하여 각기 상이하게 발달하였다. 본 연구는 남한의 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 교과서 그리고 북한의 1995년 발간 지리 교과서를 자료로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한 교과서는 탐구활동을 유도하는 학습자료, 표, 그래프, 사진 등을 수록한 반면에, 북한 교과서는 단순히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과 스케치 및 다이어그램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한의 지리교과서는 인문지리와 지지 내용을,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자연지리, 경제지리, 지도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리 용어에서 남한 교과서는 한자어와 영미식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북한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순우리말로 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통일 후 지리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리 교과서의 기술 체계와 내용 및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지리학자들과 지리교육자들의 접촉이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지리교과서, 지리교육, 다이어그램

**Abstract** : Since 1945, geography textbook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developed differently. Taking both geography textbooks of South Korea(printed in 1996 and 1997) and them of North Korea(printed in 1995),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 geography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systematically, then to show their likeness and differenc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contents in South Korean textbooks consist of explanations and many tables, graphs and photographs leading to inquiry activities, whereas those in North Korean textbooks consist of mostly sentences that explain topics, diagrams and sketches. Second, Geographical education in South Korea puts strong emphasis on human geography and regional geography, whereas that in North Korea does strong emphasis on physical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and education of cartography. Third, The geographical words of South Korean textbooks contain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and words of English origin, whereas Those of North Korean textbooks do many pure Korean words.

**Key word** : geography textbook, geographical education, diagrams

### 1. 서론

남북한이 분단국이 되어 이질화의 길을 걸어온 지도 거의 6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동서 양 진영간의 냉전을 상징하였던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사회주의 국가의 중주국이었던 소련도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하였으며, 중국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중국식 경제 개방 정책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한 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한의 지리교육 연구가, 지리교육자들이 북한의 지리교육 실체에 관심을 갖

는 것은 당연하다. 그 동안 철저히 국가 이데올로기 교육의 일환으로서 계획, 실천되고 있는 북한의 지리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으며, 있었다 하더라도 구미, 일본의 조총련계 자료들을 통한 간접적 연구의 기회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되고, 또 일부가 공개되고 있어 최소한 문헌적 연구는 가능하게 되었다(통일원정보분석실, 1995).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북한 지리교육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통일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교육 체제와 내용이 통합되어

\* 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 Geography Major in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won University)(mentor61@hanmail.net)

야 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남북한 지리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추후 통일 또는 교육 통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과정 안에는 교과 목적과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하위 수준인 교수 요강이나 교과서를 분석해야만 각 교과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교수 요강의 경우, 북한 당국의 철저한 보안 조치 때문에 교과서보다 자료 입수가 훨씬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하면 교과서는 북한 교과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노석구, 1995, 2).

북한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일반 북한지리학 연구와 지리교육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연구로서 이간용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북한의 『지리과학』(Geographical science)이라는 학술잡지에 실린 사설과 연구논문을 이용하여 북한 지리학의 일반적 성격과 연구분야 및 주제, 그리고 연구방법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이간용, 1998, 127-139). 지리교육과 관련한 그의 연구 결과(상계논문, 138)를 살펴보면 첫째, 북한지리학은 연구와 응용을 결합하는 응용지리학적 성격이 강하며, 둘째, 북한지리학의 연구는 내용상 자연지리학, 경제지리학, 그리고 지도학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셋째, 북한의 지리학은 사회주의 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자연개조방침에 따라 국토와 자연관리에 도움이 되는 응용 지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지리학의 특성은 북한 지리교과서의 목표와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후자 분야의 연구로는 지리교과서 분석 관련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북한 교과서의 목표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로서 북한 중등지리교과서를 이용하여 지리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밝힌 남상준의 연구(남상준, 1993, 150-160)와 북한 지리교과서의 이념적 특성을 연구한 강환웅의 연구(강환웅, 2002)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 교과서의 내용 분석 내지 남북한지리교과서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손용택, 1993; 이양우, 1993; 한봉희, 1993; 한만길, 1995; 최석진 외, 1996과 1997). 그 외에도 북한의 지리교육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수 및 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연구(교육인적자원부편, 2001)가 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교과서 연구를 토대로 남북한의 지리 교과서의 단원의 배열 및 기술 체계 그리고 남북한 지리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리 용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본 연구가 통일 후 지리 교과서의 기술 체계와 지리 용어 통일 문제에 대한 초석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남한의 경우 초등학교는 200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는 2001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는 2002년 3월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00년 이후의 교과서를 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동시기의 남북한 교과서를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97~1999년 북한에서 간행된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와 남한의 6차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 부분과 고등학교 공통사회(하) 및 세계지리 교과서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남북한 중등학교 지리교육의 개관

해방 후 북한의 교육 제도는 몇 차례의 큰 변화를 거친 후 1975년부터 오늘날의 11년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11년제 의무 교육기간은 1년간의 유치원 높은 반기간, 4년 간의 인민학교 기간, 6년간의 고등중학교 기간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인민학교는 남한의 초등학교에 비교될 수 있고, 고등중학교는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남한의 의무 교육기간이 9년임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의무 교육의 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 개정 이전 북한 인민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르면, 인민학교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국어」, 「외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덕·공작」 등 9개 교과를 배우고 있었는데, 1996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교과목이 빠지고, 「력사」와 「공산주의 도덕」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는 이전보다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 교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며, 지리 교과는 독립된 교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연」 교과목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 생활, 자원, 지도 등 지리영역의 교육내용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최석진 외, 1996).

1996년의 개정 이전 북한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현행 당정책」,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전자기계」, 「여학생실습」, 「공작실습」 등 21개의 교과가 편제되어 있었다. 새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르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혁명활동」, 「현행 당정책」, 「공산주의 도덕」,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전자공학 기초」, 「여학생실습」, 「공작실습」 등 21개의 교과가 편제되어 있다. 구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1996년 새 교육과정에서는 전체적인 교과목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구체적인 교과 편제는 변화를 보였다. 우선 김부자의 역사 과목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력사」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가 빠지고, 「공산주의 도덕」과목과 「천문학」과목이 추가되었다. 남한 교육과정에서는 천문학 분야가 지학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 교육과정에서는 독립 교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기타 과목의 명칭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96년 개편 이전 「지리」에는 1학년부부터 5학년까지만 주당 2시간씩 총 344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고등중학교 6년에 걸친 총 이수시간의 5.0%를 차지하였으며, 1996년 개편 새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2시간씩 총 320시간으로 24시간이 줄었는데, 이는 과목의 비중 감소라기보다는 총 이수시간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남한의 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사회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리 과목의 수업시수를 산출하기 어렵다. 중학교에서 사회시간의 전체 배당 시수는 국사를 제외하면 238시간이다. 이 배당 시간은 지리, 세계사, 공민 과목의 합이기 때문에 이를 3으로 나누면 약 80시간이 된다. 여기에 연간 34주

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공통사회(하) 배당시간 136시간을 합하면 약 216시간이 된다. 여기에서 선택 과목으로 세계지리를 선택한다면 102시간이 합쳐져 318시간이 된다. 남북한의 전체적인 지리시간 배당은 비슷하지만, 지구과학 내용인 고등중학교 1학년과 5학년 지리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남한의 지리수업시간이 북한의 그것보다 약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지리교육 편제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남한측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과정별로 이수 과목이 다르고 같은 과정이라도 선택에 따라 이수 과목이 달라지는데 비하여, 북한측 교육과정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 과학 교육과정에는 지구과학 과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등학교 지리 1학년과 5학년 지리 과목에 지구과학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셋째, 남한의 경우 중학교 수준까지는 통합과학 형태의 교과가 제공되고 고등학교부터 분과과학 형태의 교과가 제공되는데 비하여 북한은 고등중학교 1학년부터 분과과학 형태의 교과가 제공된다.

### 3. 남북한 지리 교과서의 비교 분석

#### 1) 교과서의 외형적 비교

남한의 교과서 가운데 중학교에서 한국지지를 기술하는 부분은 사회1의 II~IV단원이며, I단원 '지역 사회 탐구'는 통합단원이다. 한국의 계통지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 3의 V단원과 VI단원이다. 세계지리 내용이 담겨 있는 책 및 단원은 6차 교육과정(1992~1997)을 기준으로 할 때, 중학교 사회 1의 VIII단원과 IX단원, 사회 2의 III단원과 IV단원이다. 그리고 한국의 계통지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등학교에서는 공통사회(하) I~V단원이며, 한국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VI단원뿐이다. 또한 세계지리는 선택교과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과 달리 지리가 독립 교과로 존재하고 있다. 고등중학교 1학년과 5학년 지리는 남한의 천문학을 제외한 지구과학에, 2학년 지리가 한국의 계통지리에, 3학년 지리

가 남한의 한국지리에, 4학년 지리가 남한의 세계 지리에 해당이 된다.

북한의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지질과 인쇄의 선 명도에서 있어서 남한의 교과서에 비하여 크게 뒤 떨어지는데, 이는 북한 경제의 어려움과 인쇄술의 후진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 교과서의 경우 과목별로 크기가 동일하지만 북한 교과서는 같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학년별로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도 있다. 북한 지리교과서는 가로 15.0cm로 동일하나, 세로는 지리 1과 지리 2가 21.7cm로 짧은 편이다. 남한 지리 교과서보다 북한 지리 교과서가 약간 더 크다.

남북한 지리 관련 교과서의 크기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지리 관련 교과서의 크기

남한 교과서			북한 교과서		
책 명	발행년도	크기(cm)	책 명	발행년도	크기(cm)
사회 1	1993	14.7×20.9	지리 1	1995	15.0×21.7
사회 2	1994	14.7×20.9	지리 2	1995	15.0×22.1
공통사회(하)	1996	14.7×20.9	지리 3	1995	15.0×22.1
세계지리	1997	14.7×20.9	지리 4	1995	15.0×22.1
			지리 5	1995	15.0×21.7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로서 1쪽 당 행수와 1행 당 글자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쪽 당 행수와 행 당 글자수를 곱하면 1쪽 당의 최대 글자 수를 알아 볼 수 있어 교과서의 내용 밀도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세계지리에 한정해서 비교하면 남한의 세계지리 쪽 당 행수는 교과서 본문을 기준으로 25개로 8종 교과서가 동일하며, 행 당 글자 수는 대략 28개이다. 따라서 쪽 당 최대 글자 수(행수×글자 수)는 700자이다. 북한의 세계지리 부분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4학년

지리는 쪽 당 행수가 40행에 달하고, 행 당 글자 수는 30자로 쪽 당 최대 글자 수는 1,200자에 달한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교과서가 남한의 교과서보다 쪽 당 최대 글자수가 훨씬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한 교과서는 가독성 위주의 편집, 북한 교과서는 경제성 위주의 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교과서가 가로의 약간 길기도 하지만 글자 크기가 남한의 교과서의 글자보다 작은 데도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밀도의 차이는 차시 당 쪽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시 당 쪽수는 교과서 전체 쪽수를 배당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내용밀도가 된다. 남한의 공통사회(하)와 세계지리, 북한의 지

리 교과서의 전체 쪽수, 배당 시간, 차시 당 쪽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남한 고등학교 공통사회(하) 교과서가 차시 당 약 2.5쪽, 세계지리 교과서가 3.4쪽인데 비하여 북한의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는 차시 당 1.35쪽 정도로 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차시 당 1쪽 정도로 교과서의 쪽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생각된다. 특히 남한의 세계지리 과목은 배당 시간에 비하여 학습량이 방대하여 교사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표 2. 지리 교과서의 전체 쪽수, 배당 시간, 차시 당 쪽수

남북구분	교과서명	전체 쪽수	배당 시간	차시 당 쪽수
남한	공통사회(하)	339	136	2.49
	세계지리	350	102	3.43
북한	지리 1	90	72	1.25
	지리 2	95	72	1.31
	지리 3	104	72	1.44
	지리 4	102	72	1.41
	지리 5	96	72	1.33

이 사실이다.

## 2) 교과서의 편성 체계 및 단원 전개 비교

교과서의 편성 체제와 관련된 요소로는 머리말과 차례, 단원, 부록 등을 들 수 있다. 머리말과 차례 및 부록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 알아보고, 단원 구성을 알아볼 때는 단원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단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 (1) 중등학교 사회(지리) 교과서의 편성 체계

남한의 중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지리와 관련된 과목은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공통사회(하)', '세계지리'이고, 북한의 중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지리와 관련된 교과는 고등중학교 1, 2, 3, 4, 5학년용 '지리'이다.

단원이 시작되기 전에 남한의 중등학교 교과서에는 천연색 화보, 속표지, 머리말, 차례가 제시되어 있으며, 북한의 교과서에는 차례와 머리말<sup>1)</sup>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의 안내 역할을 하는 남한 교과서의 머리말과는 달리 북한 교과서의 머리말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남상준(1999, 362)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先紅後專<sup>2)</sup>의 교육이념이 배태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이어 남북한 교과서 모두 단원이 전개되고, 부록과 관련 사항이 제시된다.

(2) 중등학교 사회(지리) 교과서의 단원 전개 체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는 남한의 경우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한의 교과서는 단원의 하위 구조로 중단원, 소단원 등을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의 교과서는 절이 장을 이루는 유일한 하부구조이다.

단원(장)의 시작 부분에 제시되는 도입 부분은 남한의 교과서는 2쪽을 할애하는 반면에, 북한의 교과서는 한국지지에 해당하는 4학년 교과서가 2쪽을 할애한 것을 제외하고, 0.5쪽 미만으로 양이 극히 미미하다. 게다가 장의 도입 부분에는 반드시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가 있고, 이어서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학습의 필요성을 적어 놓았다. 하위 구분인 절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가 반드시 나오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과목 특성상 세계지리 부분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4학년 지리책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남한의 경우, 각 단원 내에 단원 소개, 학습 과제 혹은 학습 목표, 내용 설명, 도움글, 중단원 용어 정리 및 연구 문제, 단원 학습 정리, 보충학습자료, 탐구학습 문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 세계지리 교과서에는 공통사회(하)에 없는 부록이 추가되어 있고, 부록 안에 지도 투영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북한의 지리교과서는 각 학년마다 단원 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리 내에도 계통지리 부분과 지지 부분은 특성상 기술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1학년 지리교과서는 내용 설명, 실험, 관찰, 실습, 연습문제, 복습 문제 등이 있다. 그 중 문제는 절의 끝 부분에 제시되어 해당 절의 내용에 관련된 문항이 수록되는데 비하여, 복습 문제는 장의 끝 부분에 제시되어 장 전체 내용에 관련된 문항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원 전개 형태는 자연과학의 생물, 물리, 화학 교과서와 거의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지구과학 교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리 교과가 지구 과학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 과목 자체가 자연과학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한의 자연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1학년 지리의 심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5학년 지리책은 1학년 지리책에 있는 실험, 관찰, 실습, 연습문제가 모두 빠지고, 다만 각 절의 끝에 문제 몇 개만 수록되어 있고, 철저히 내용 설명 위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교과서는 읽을거리나 내용 정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 중등학교 사회(지리) 교과서의 단원 배열

남한 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1학년 9단원, 2학년 8단원, 3학년 7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단원 중에서 지리와 관련된 단원은 1학년에서 I~IV단원과 VIII~IX이다. 이들 가운데 I

단원은 통합 단원이고, I~IV단원과 VIII~IX단원은 각각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서 지지에 해당한다. 2학년에서 III~IV단원이 지리와 관련이 있는데, 1학년에 이어 배우는 세계지리 부분이다. 3학년에서 지리영역에 속하는 단원은 V~VI단원이고, VII단원은 1학년 I 단원과 마찬가지로 통합단원에 속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공통사회(하)의 경우 8개 단원, 세계지리의 경우 공통사회(하)의 경우처럼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 5차 교육과정과 달리 한국지리 과목이 공통사회라는 통합

교과목으로 통합된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고등중학교 지리 교과서는 남한과 달리 지리가 독립 교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1학년 6장, 2학년 7장, 3학년 6장, 4학년 7장, 5학년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구과학이 과학에 속해 있는 남한의 교육과정과 달리, 북한의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지구과학 교과가 없으며, 지리 교과에서 지구과학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한 교과서의 단원수가 북한 교과서의 장수보다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과

표 3. 남북한 중등학교 지리 단원(장)의 명칭

남한		북한	
교과목(학년)	단원의 명칭	교과명(학년)	장의 이름
중학 사회(1)	I. 지역 사회 탐구 II. 중부 지방의 생활 III. 남부지방의 생활 IV. 북부지방의 생활 VIII. 동부 및 동남 아시아의 생활 IX. 남부 및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생활	지리(1)	1. 지구 2. 지구의와 지도 3. 날씨와 기후 4.륙지의 물과 바다물 5. 지형과 그 변화 6. 자연대
중학 사회(2)	III. 유럽의 생활 IV.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	지리(2)	1. 우리나라의 영토적 크기, 행정구역 2. 우리나라 지층과 지하자원 3. 우리 나라의 지형 4. 우리 나라의 바다 5. 우리 나라의 기후 6. 우리 나라 강하천과 호수, 온천 7. 우리 나라 동식물의 분포와 자연보호
중학 사회(3)	V. 공업화와 인구 및 도시문제 VI. 자원의 지역개발 및 환경문제 VII. 세계화 시대의 대응		
고교 공통 사회(하)	1. 국토의 이해 2. 자연환경과 생활		
	3. 생활 공간의 변화 4. 경제 활동의 지역구조 5. 국토의 개발과 환경보전 6. 각 지역의 생활 7. 국토의 분단과 통일 8. 국제화 시대의 한국	지리(3)	1. 서북지방 2. 동북지방 3. 중부지방 4. 서남지방 5. 동남지방 6. 우리나라 경제배치
세계지리	1. 세계의 자연 환경 2. 세계의 인문 환경 3. 서태평양 연안 국가 4. 동남 및 남부 아시아 5. 서남 아시아와 아프리카 6. 유럽 7. 아메리카 및 양극 지방 8. 세계의 과제와 미래	지리(4)	1. 세계지리개관 2. 아세아주 3. 구라파주 4. 아프리카주 5. 북아메리카주 6. 남아메리카주 7. 대양주와 양극지방
		지리(5)	1. 지구 2. 지도 3. 지구상의 대기 4. 지구상의 물 5. 지형과 그 변화 6. 지구상의 생물과 토양 7. 자연보호

학과 고등학교 공통사회(하)를 배운 남한 학생의 경우 19개 단원을 학습하고,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세계지리를 학습한 학생의 경우 27개 단원을 학습하는데 비하여, 북한의 학생들은 모두 33개의 장을 학습하게 된다.

남북한 지리 교과서의 단원(장)명과 단원(장)수를 살펴볼 때, 북한의 지리 교과서는 남한의 교과서에 비하여 단원의 범위가 좁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남한의 교과서가 '지리' 및 '인문지리'에 비중을 두는 반면, 북한의 교과서는 각론적 성격의 '자연지리'와 '경제지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한의 교과서가 미국 등 서구지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북한의 교과서는 구소련 등의 동유럽 국가의 교육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3) 교과서의 내용 비교 분석

남북한의 중등학교 학제와 교육과정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 전개를 직접 비교하는데 있어서 비교 대상을 설정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 즉, 남한의 경우 중학교 3년 과정에서 사회는 통합 사회 형태로 제시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분과사회의 형태로 제시되며,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 과정에서 학습하는 교과목이 서로 다른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 6년 동안 학습하는 지리 교과가 모두 분과 지리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남한의 과정별 선택과목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 (1) 단원(장) 배열의 비교

지리는 보통 크게 계통지리와 지지로 양분되며, 계통지리는 다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세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남한의 경우 중학교 사회에서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내용으로 하는 지리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하)에 이르러서야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하)에서 종합단원 1, 7, 8단원을 제외하면 자연지리 부분은 2단원, 인문지리 부분은 3, 4, 5단원으로 자연지리보다 인문지리 부분이 양적으로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하) 6단원 '각 지역의 생활'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다룬 지식을 토대로 4개의 특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깊게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분량 면에서 남한의 교과서는 지역지리보다는 계통지리에, 자연지리보다는 인문지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지리 교과서 가운데 중등학교 지리 1과 지리 2는 엄격히 말하면 남한의 지리교과와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남한의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5학년 지리는 1학년 지리의 내용을 심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학년 지리는 한국 계통지리에, 3학년 지리는 한국지리에, 4학년 지리는 세계지리에 해당한다.

#### (2) 계통지리 부분의 내용 비교

남한의 공통사회 하(한국지리)의 경우 교과서의 머리말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대단원 '1. 국토의 이해'는 중단원 '1. 국토의 의의', '2. 국토의 인식', '3. 국토의 지리적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지리학의 필요성, 전통적인 국토관, 지리적 정보가 다루어지고 있다. 지리정보체계의 등장으로 5차 교육과정과 달리 지도 부분이 지리정보에 포함되어 버렸고, 그 분량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북한 지리 교과서의 경우 지도 학습은 고등중학교 1학년 지리교과서의 '제 2장 지구의와 지도'와 고등중학교 5학년 지리 교과서의 '제 2장 지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립된 장을 할애할 정도로 지도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도가 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의 탐사, 군사 작전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계통지리는 북한의 경우 고등중학교 2학년 지리책에서, 남한의 경우 공통사회(하) II~V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교과서는 그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공통사회(하)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자연지리 부분은 불과 한 단원에 그치는 반면에 북한의 교과서는 한국에 대한 인문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자연지리 부분과 경제지리로 나누어져 있다. 자연지리와 경제지리는 세분되어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는 지리교

육 내용을 자연지리와 경제지리로 양분하는 구소련의 지리교육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지리교육에서 자연지리가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의 지리교육과 비슷하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2학년 지리교과서는 제 7장을 제외하고 사실 남한의 'II 자연과 환경' 단원에 넣을 수 있다. 또한 한국 교과서의 'III 생활공간의 변화' 부분은 북한 교과서에서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IV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단원의 '5. 상업과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북한 교과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IV 경제활동의 지역구조'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북한의 고등중학교 '제 6장 우리나라 경제배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단원명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북한의 계획경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국토개발' 중단원은 북한 교과서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북한 지리 교과서 내용 가운데 남한 지리교과서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호수, 온천, 약수는 남한 교과서에는 거의 취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호수를 강조하여 다루는 이유는 관개 용수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자연 개조를 강조하는 교육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학이 남한보다 뒤떨어진 북한에서는 온천수와 약수를 질병 치료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한 지리 교과서 '환경보전' 단원에서는 오염의 종류와 환경 보전 대책에 중점을 두어 다루는 반면에, 북한 지리 교과서에서는 동식물의 분포를 설명하고, 그에 의해 설치된 자연보호구와 동식물보호구를 서술하고 있다. 남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환경보전' 내용은 고등중학교 5학년 지리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 교과서에 실린 지리 교수 자료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남한 교과서의 경우 단원 첫머리에 단원 소개가 있고, 이어서 학습과제 그리고 학습내용이 전개되고, 단원 끝에 학습정리가 나오고 끝이어 보충학습자료와 탐구학습문제가 나온다. 북한 교과서의 경우 장과 절의 첫머리에 보통 활동 제시문 및 질문이 나오는데, 종종 내용의 중간에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장 혹은 절의 끝에는 지도와 관련된 실습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있다.

남한의 지리교과서는 대체로 본문과 지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약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 지리 교과서는 지도 그리기, 위치 표시하기, 내용 넣기 등을 통하여 본문과 지도를 연결시켜 하는 지리학습이 잘 되어 있다.

남한의 지리교과서의 경우 표, 지도, 다이어그램, 사진 등이 비교적 골고루 실려 있으나, 북한 교과서는 남한 교과서에 비하여 표나 그림이 적은 편이고, 사진은 전혀 게재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사진을 대신한 스케치가 풍부하게 실려 있다. 이 스케치는 특징만 잡아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보다 학생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어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그 외에 남한 지리 교과서에서는 지형과 지하자원을 분리하여 수록하는데, 북한 지리 교과서는 지형과 지하자원을 연결시켜 수록하는 점이 다르다.

### (3) 남북한 교과서의 한국지리 부분의 비교

남한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경우 한국지리 부분은 중학교 1학년 II~IV단원과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하) VI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를 중부, 남부, 북부로 크게 삼등분을 한 다음, 다시 지형과 문화권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각 대단원을 기술할 때는 우선 전체적인 지역성을 설명한 다음, 각 지역의 특색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의 경우 한국지리 부분은 고등중학교 3학년 지리책에 기술되어 있으나, 마지막 제 6장에 계통지리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배치'가 기술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국의 지역구분은 남한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한 도안에서도 군마다 기후와 토양조건이 다르며 심지어 한 군 안에서도 산지대와 해변가의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고등중학교 『지리』 3, 2)라고 언급하면서 지역구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그 지역차이의 요인을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조건에서 찾고 있다. 다음의 예시가 그를 잘 입증하고 있다.

"서북지방과 동북지방은 모두 북쪽에 놓여있고 광대한 아세아대륙과 직접 잇닿아있어 대륙



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산지가 가장 우세하고 고원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후조건에서도 대륙의 영향을 그 어느 지방보다도 더 많이 받으며 특히 겨울기온이 몹시 낮다. 따라서 이 지방에는 자연기후조건과 관련하여 추위에 잘 견디는 바늘잎나무와 넓은 잎나무가 넓은 지역에 퍼져있다.

중부지방은 우리나라에서 면적 상으로는 큰 영역을 차지하지만 자연기후조건에서는 서북 및 동북 지방과 서남 및 동남 지방의 중간적 특징을 많이 가진다. 중부지방은 또한 중부에 있는 위치조건과 조선동해와 조선서해를 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식물가운데 넓은잎나무가 많고 산림 속에 아열대식물이 섞여있으며 우리나라 특산식물이 많다.

서남 및 동남 지방은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므로 기후조건으로 보면 가장 덥고 비도 많이 내리는 지방으로 되고 있다.”(고등중학교 『지리』 3,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지방구분(지역구분)은 위치, 기후, 지형, 식생 등 자연지리적 조건을 고려한 지역구분으로 볼 수 있다. 북한 교과서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아울러 오랜 전통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국토를 5개 지방 즉, 서북지방, 동북지방, 중부지방, 서남지방, 동남지방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북한의 지역구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한 교과서의 경우 휴전선을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의 실질적인 지역구분의 경계로 사용하는 반면에, 북한 교과서의 경우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를 중부지방에 포함시킨 점이다. 즉, 북한 교과서에서는 휴전선을 지역구분의 경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은 북한의 수도가 있는 서북지방을 필두로 동북지방, 중부지방, 서남지방, 동남지방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서북지방에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교과서에서도 중부지방을 먼저 취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의 기술은 대체로 북→남, 서→동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지리교과서의 장과 절의 기술 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통일되어 있다. 본문 기술 내용 중간 중간에 “찾아보아라”, “비교하여보아라”, “밝혀보아라” 등의 활동 제시문과 “가지고 있는

가?”, “무엇 때문인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확인을 위한 것으로서 대개 그 뒤에 해답이 나온다. 그리고 절의 끝에는 복습문제와 실습이 첨부되어 있다. 문제는 간단한 질문으로 되어 있어 내용 중간 중간에 보이는 질문과 구별되지 않고 있으며, 실습은 지도를 그리고, 표시해 넣는 식의 지도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도는 ‘우리나라의 지방구분’과 각 도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고, 또한 중요한 산업의 분포 지도가 나타나고, 중간에 원리의 설명을 위한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있고, 경치, 건물, 기념물, 공업 제품 과정을 세밀하게 그린 스케치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림 3-5 철생산과정도’는 철 생산과정을 알기 쉽게 그려져 있어 이해하기가 쉽다.

북한의 교과서 분량 면에서 북한 부분은 10개의 절 50페이지, 남한 부분은 9개의 절 20페이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 교과서는 비교적 남한과 부분을 균형 있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예상외로 북한 교과서는 최근 남한의 상황까지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몇해 전까지만 하여도 중석생산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상동광산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 정책에 의하여 폐광되고 말았다.”(고등중학교 『지리』 3, 60)

“그러나 최근년간 남조선괴뢰도당의 농산물수입개방책동으로 미국산담배가 몰밀 듯이 쏟아들어와 이 지역에서의 담배생산은 대폭 줄어들었다.”(고등중학교 『지리』 3, 66)

남한 교과서에서 북한의 취급은 극히 간략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변화를 일부 수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방 전 자료를 기초로 서술한 교과서가 많다.

#### (4) 남북한 세계지리 교과서 부분의 비교

남한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경우 세계지리 부분은 중학교 1학년 사회 VIII~IX단원과 중학교 2학년 사회 III~IV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별 선택과목으로 세계지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 4학년 지리 전체가 세계지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1년 간 학습하게 되어 있다.

표 4. 남한의 세계지리와 북한의 고등중학교 4학년 지리의 단원 비교

남한	북한
1. 세계의 자연 환경	1. 세계지리개관
2. 세계의 인문환경	2. 아세아주
3. 서태평양 연안 국가	3. 구라과주
4. 동남 및 남부 아시아	4. 아프리카주
5. 서남 아시아와 아프리카	5. 북아메리카주
6. 유럽	6. 남아메리카주
7. 아메리카 및 양극 지방	7. 대양주와 량극지방
8. 세계의 과제와 미래	

중학교 세계지리 내용은 통합사회과 내용의 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교과서 비교는 남한의 세계지리 교과서와 북한의 고등중학교 4학년 지리 교과서가 비교 가능하다(표 4).

남한의 세계지리 교과서의 경우 총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단원인 'Ⅷ. 세계의 과제와 미래'는 도시화, 산업화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과 세계화의 진행 그리고 그 가운데 지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북한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대단원에서는 단원의 도입부에 그 단원의 특색 및 구조, 목표 등을 제시하였고, 각 단원의 본문 중에는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각주와 주요 용어를 실었고, 대단원 끝에는 단원 학습 정리를 넣어 학습 후 최종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북한의 지리 교과서의 경우 단원 도입부가 빠져 있고, 본문의 내용도 설명 중심으로 간략히 되어 있으며, 다만 단원마다 각 국가들을 설명하는 표와 지역별 지도가 실려 있을 뿐이다. 단지 장 끝에 '런습'이라고 하여 백지도에 국명 및 수도를 그려 넣고, 표시하는 초보적인 문제가 실려 있을 뿐이다.

남한의 세계지리 교과서의 경우 I과 II단원은 세계지리의 개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세계의 기후, 식생, 지형, 해양 등 자연 환경과 인종, 문화, 자원의 분포와 이동 등 인문환경을 다루고 있다. 북한의 지리 교과서의 경우 제 1장 세계지리개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 순서는 남한 교과서가 기후·식생→지형·해양→인종·문화→자원인 반면에 북한의 교과서는 지형→기후→주민 순서이다. 남한의 세계지리 교과서는 헤트너

(Hettner)의 지지적 도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북한의 교과서보다 인문환경을 더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남한의 교과서에서는 북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문화와 자원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남한의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 투영법 등은 북한의 고등중학교 5학년 지리 교과서 '제1장 지구'와 '제2장 지도'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세계의 지형의 기술에 있어서는 남북한 지리교과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기후 구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 남한 교과서는 독일의 쾨펜(Köppen)의 기후 구분에 따라 기온, 강수의 시기, 식생에 따라 크게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 기후로 구분하는 반면 북한 교과서는 기온과 식생에 기초하여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 고산 기후로 구분하고 있다.

남한에서 사용하는 기후 구분은 독일의 쾨펜의 기후 구분에 기초하기 때문에 명확한 학문적 구분 기준에 따른 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기후 구분은 체계적이지 못하며, 주로 관습적이며 식생에 의한 구분이다. 북한의 기후 구분에서는 열대와 온대 사이에 아열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한의 지리 교과서에서 온대에 속하는 지중해성 기후와 온대 동계 건조 기후를 이 아열대에 포함시키는 면이 차이를 보인다. 냉대를 일컫는 아한대 기후 구분도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 스텝 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를 구분하여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 지역의 기술에서 남한의 교과서가 클라이모그래프, 기후 분포를 나타낸 세계 지도 및 기후 그래프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교과서의 경우 기후에 대한 설명은 불과 2페이지에 불과하고 지도도 세계기후류형분포도 하나밖에 없다. 내용에 있어서도 기온과 강수량의 특색 외에 인문 및 문화에 관한 기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남한의 세계지리 교과서의 경우는 기후와 농업을 반드시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교과서의 경우 특별한 지역구분에 대한 범주 없이 단순히 대륙에 의한 지역구분을 하고 있는데, 즉 전세계를 아세아주, 구라과주, 아프리카

표 5. 남북한 교과서의 기후 구분 비교

남한		북한	
열대 기후	열대 우림 기후	열대 기후	열대 강우림기후
	열대 사바나 기후		열대초원기후
	열대 몬순 기후		열대철바람기후
온대 기후	온대 동계건조 기후	아열대기후	아열대철바람기후
	온대 하계 건조기후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	온대기후	온대해양성기후
	온대 습윤 기후		온대대륙성기후
냉대 기후	냉대 습윤 기후		온대철바람기후
	냉대 동계 건조기후		
한대 기후	툰드라 기후		동토대 기후
	빙설 기후		영구동결기후
건조기후	사막기후		열대 사막기후
	스텝기후		
고산기후			고산기후

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대양주와 광극지방으로 지역구분을 하고 있다. 대체로 장의 구성도에 따르고 있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6차 교육과정의 남한의 세계지리 교과서의 경우 'Ⅲ. 서태평양 연안 국가', 'Ⅳ. 동남 및 남부 아시아', 'Ⅴ. 유럽', 'Ⅵ. 아메리카 및 양극 지방' 단원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Ⅲ단원은 서태평양 연안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공통점을, Ⅳ단원은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공통의 건조 문화권이라는 공통적인 지역성을, 그 다음 Ⅴ단원은 크리스토프, 백인종, 유럽 언어라는 문화적 공통성을, Ⅵ단원은 신대륙이라는 공통의 지역성을 기초로 지역구분을 하였다. 즉, 남한의 세계지리 교과서는 지리적 위치, 기후, 인종, 산업 등의 복합성을 기초로 지역구분한 것이다.

남한의 교과서의 경우 일반적인 지지 기술의 원칙들, 즉,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자국과 이해 관계가 깊은 나라에서 덜 깊은 나라로'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 제 5차 교육과정에서 6차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5차 교육과정의 몬순 아시아 단원에서 중국과 일본을 빼어내고, 오세아니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빼어내어 '서태평양 연안 국가'라는 단원을 신설한 점이다. 이는 교과서 제작 당시 서태평양 국가들 간의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졌던 시대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분량 면에서도 서

태평양 연안 지역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북한 교과서의 지지 기술도 일반적 지지 기술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각 대단원(장)의 기술에서 남한의 6차 교육과정 세계지리 교과서의 경우 첫 중단원에서는 지역 범위 및 자연 환경, 지역성,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공통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지리 교과서의 경우 장의 1절에 자연지리적 특성이라고 하여 위치, 면적, 바다, 지형, 기후, 자연대(식생) 등 자연지리적 배경이 주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각 장에 공통적으로 대륙정치지도, 대륙자연지도, 산맥과 고원 분포도, 대륙한해강수량도, 대륙기후구, 산업지도 등 그림이 실려 있고, 또한 대륙에 속한 국가들의 국명, 면적, 인구수, 수도 등의 개관을 나타내는 표가 반드시 실려 있다. 또한 각종 동식물, 산물, 경관 등을 스케치한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사진보다 오히려 생생하여 교육 효과가 높은 것 같다.

대륙 이하의 지역구분에서는 가령 동부아세아, 동남아세아, 중부아세아, 남부아세아, 서남아세아 등 위치에 따라 지역구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기술을 진행해나갔다. 북한 교과서의 중부아세아는 남한 교과서에서는 중앙아시아라고 기술되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스탄 등 5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서는

중앙아시아국가들의 독립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의 경우 유럽주(구라파주)의 기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 동구라파, 북구라파, 중구라파, 서구라파, 남구라파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교과서와 남한의 교과서에서 동일한 명칭이더라도 소속된 국가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지역 구분의 기준 차이 때문이다(표 6). 북한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위치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는 반면에, 남한 교과서에서는 정치·경제·문화 특성을 지역 구분의 지표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동부유럽은 북한 교과서에서는 유럽 러시아와 舊蘇聯 붕괴 후 독립한 주변국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반면에, 남한 교과서에서는 냉전시대 舊蘇聯의 영향하에 있었던 위성국가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남한 교과서에서는 러시아를 동부유럽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부유럽의 경우 남한 교과서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과 북한에서 언급하는 북유럽 4국 등 다수의 국가들을 포함하지만 북한 교과서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 등 소수의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남한 교과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부유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때 '중부유럽'이라는 용어는 동부유럽과 서부유럽 사이의 점이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남한 교과서에서 서부유럽

으로 분류한 독일어권 국가들과 舊蘇聯 서쪽에 인접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포함되어 있다.

남부유럽의 경우 남한 교과서는 인종·종교·언어의 유사성을 지표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에스파냐를 남부유럽에 묶은 반면에, 북한 교과서에서는 뚜렷한 구분의 기준 없이 단순히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남부유럽으로 묶었다. 북한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남부유럽'과 남한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남부유럽'은 그 국가들의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 교과서의 '남부유럽'에는 남한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남부유럽' 국가들 외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부유럽의 경우도 남한교과서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서부유럽국가들과 종교와 언어 및 민족 등 문화적 속성과 기후 등 자연환경 측면에서 비슷하므로 따로 지역구분을 하지 않고 서부유럽에 포함시켜 기술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부유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때 '중부유럽'이라는 내용의 기술에 있어서는 북한과 정치적, 이념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부유럽을 가장 먼저 기술하고, 이어서 중립적인 북구라파, 그 다음에 중구라파, 남구라파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남한 교과서의 경우는 남한과 정치적, 경제적 유대가 깊은 서부유럽이 우선 기술되고, 이어서 남부유럽, 동부유럽, 러시아 및 그 인접 국가가 기술되고 있다.

아프리카주의 기술에 대해서 북한 교과서의 경우 북부→서부→동부→중부→남부 아프리카 순으

표 6. 남북한 교과서의 유럽 지역 구분

	남한	북한
동부유럽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벨라루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도바
서부유럽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화란(네덜란드), 벨지움(벨기에), 룩셈부르크
중부유럽	명칭 없음	독일, 스위스, 오지리(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뵐스카(폴란드), 체스꼬(체코), 슬로벤스꼬(슬로베니아), 헝그리아(헝가리)
남부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북부유럽	명칭 없음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크, 스웨덴

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 교과서의 경우 북부 아프리카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서남 아시아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어서 중부 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가 다루어진다.

아메리카주 기술에서 남한 교과서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문화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는 리오 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지역 구분을 하는 반면에, 북한 교과서에서는 지리적인 구분으로 파나마 해협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구분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기술에서 북한의 맹방인 쿠바가 있는 중앙아메리카와 서인도제도가 우선 다루어지고, 북미가 가장 뒤에 다루어지고 있다.

#### 4. 남북한 지리 용어 비교

남북한의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거의 60년 간 교

류가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는 지리 용어의 차이가 크다(표 7). 남한의 지리 용어는 한자어와 외래어 표기가 많은 반면에, 북한의 지리 용어는 순우리말,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졌다.

북한 지리학이 자연지리학적 성격이 강하므로 우선 지형과 기후 용어를 살펴보고, 이어서 세계지리 관련 용어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표 8, 표 9).

남한과 북한의 지형 관련 용어를 비교해보면, 첫째, 남한에서 사용하는 지형 용어가 한자어 및 영어식 명칭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북한 지형 용어는 순우리말이 많다. 물론 북한에서도 우리말 표현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 한자어를 사용 경우도 있다(표 8). 가령 해류, 습곡, 지핵, 축척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자어를 순 우리말화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 볼 때 북한에서 사용하는 순우

표 7. 남북한 지형 용어 비교

남한	북한	남한	북한
경사	비탈	해안단구	바다가다락땅
핵	지핵	사구	모래언덕
맨틀	만틀	마그마, 용암	암장
습지	습한땅	대륙사면	대륙비탈면
태양고도	해높이	해분	바다분지
지면	흙겉면	평정봉	평마루바다산
수면	물겉면	하천구배	강바닥물매
해령	바다밑산줄기	취송류	풍성류
단층운동	땅끊임운동	보류	보상류
우곡	비물골	인력	끌힘
퇴적작용	쌓임작용	하안단구	강가다락땅
충적평야	충적벌	정단층	내리끊임
선상지	부채땅	역단층	올리끊임
석주	돌고드름	용암대지	덕모양화산
석순	돌순	순상화산	방패모양화산
불투수층	물안스밈층	중상화산	종모양화산
해식애	바다가벼랑	원추화산	원뿔모양화산
사구	모래부리	산맥	산줄기
화산탄	속돌	북한해류	북조선해류
지오이드	게오이드	동한해류	동조선해류
중력선	드림선	황해해류	서조선해류
왜곡현상	꼬임현상	쿠로시오해류	조선해류
P파	첫떨기	외적영력	지구외부힘
S파	주요떨기	내적영력	지구내부힘
보류	보상류	인력	끌힘
하천구배	강바닥물매	취송류	풍성류

표 8. 남북한 기후 및 기타 관련 용어 비교

남한	북한	남한	북한
풍속	바람속도	빙설기후	영구동결기후
풍향	바람방향	비단구름	권운
해풍	바다바람	비단더미구름	권적운
육풍	륙지바람	비단층구름	권층운
연평균기온	한해평균기온	고적운	높은더미구름
연강수량	한해강수량	고층운	높은층구름
집중호우	무더기비	층운	층구름
다우지	강수량이 많은곳	적운	비구름
소우지	강수량이 적은곳	소나기	소낙비
높새바람, 편풍	금강내기	양쯔강기단	장강기단
열대우림기후	열대우림기후	시베리아기단	씨비리기단
열대사바나기후	열대초원기후	온난전선	더운전선
사막기후	열대사막기후	한랭전선	찬전선
온대동계건조기후	아열대철바람기후	시베리아지방	씨비리지방
서안해양성기후	온대해양성기후	얼룩말	줄말
온난습윤기후	온대대륙성기후	코뿔소	서우
온난습윤기후	온대철바람기후	철광석	쇠돌
냉대기후	아한대기후	폐수	버림물
툰드라기후	동토대기후	해조류	바다나물류

리말의 지형 용어가 남한의 지형 용어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가령 지형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산맥, 단층, 사구, 충적평야, 해안단구, 하안단구, 선상지, 정단층, 역단층, 우각호보다 산줄기, 땅끊임, 층적별, 바다가다락땅, 강가다락땅, 부채땅, 내리끊임, 올리끊임, 강자리호가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둘째, 북한 지리교과서에서 외래어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고 있는데, 만틀, 바르, 씨베리, 매그쉴트 등이 그 예이다. 발음은 영어식이 아니라 러시아식 발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북한은 해류의 명칭에서 일본 발음의 명칭인 쿠로시오 해류나 중국의 황해 해류의 명칭을 배제하고, 모두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주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시조새에 조선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한 것도 그 예에 속한다.

지형 용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용어는 한자어를 사용한 반면에, 북한의 용어는 최대한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기상 및 기후 용어들보다 북한의 용어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세계 기후 용어의 경우 남북한 용어의 사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편 바람의 경우 남한에서는 높새바람, 북한에서는 금강내기라고 부르고 있다. 기

타 동식물 용어에서도 북한은 한자어 대신에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의 '코뿔소'를 북한에서는 '서우'라고 부르는데,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 지리교과서의 세계지지의 경우 북한 교과서는 음역한 한자어 혹은 원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국명과 지명을 표시하고 있다. 가령 스웨덴을 스웨리에, 폴란드를 뿔스가, 체코를 세스꼬, 슬로베니아를 슬로벤스꼬, 헝가리를 웅그리아, 멕시코를 메히꼬, 네덜란드를 화란, 이집트를 애굽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남한 교과서의 경우 세계 국명과 지명은 대부분 영어 발음에 기초하여 표시하고 있다.

## 5. 결론 및 요약

남북한 교과서 내용 비교 결과에 있어 교과서 자체의 차이뿐 만 아니라 학제와 교육과정의 차이에 의하여 남북한의 상이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내용 비교 결과를 해석할 때는 남북한 학제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지리 교육과정을 비교해볼 때, 남한은 지리 과목이 통합 사회과목에 편입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은 지리 과목이 독립 교과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지구과학이 과학 교과에 들어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지구과학 과목이 없고, 천문학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과학의 내용이 중등학교 1학년과 5학년 지리에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남한보다 북한의 지리 과목의 내용이 더 포괄적이며, 교육과정의 편제에서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의 외형을 살펴보면, 북한의 교과서는 인쇄의 수준이 떨어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과서 단위 쪽 당 담겨 있는 내용이 많았다.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학생들은 남한의 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적은 쪽수의 교과서를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과서 쪽 당 내용 밀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교과서에 풍부한 학습자료나 흥미 있는 읽을 거리를 제시할 수 없는 것도 교과서 내용 밀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교과서 내용 전개를 살펴볼 때, 중등학교 수준에서 남한의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는 매우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한의 교과서는 용어 정리 및 연구 문제, 학습 정리, 보충학습자료, 탐구학습 문제가 많이 제시되어 있으며, 표, 그래프, 지도, 다이어그램, 사진 등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교과서는 수업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에 실험, 관찰, 실습, 연습문제, 복습 문제, 활동 제시문이 삽입되어 있고, 남한의 교과서에 비해 표나 그래픽 자료가 훨씬 적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는 남한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이어그램 혹은 스케치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학습 내용과 지도 교육이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단원의 체계와 배열을 살펴볼 때, 남한의 교과서는 지리와 인문지리를, 북한의 교과서는 자연지리와 경제지리 및 지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자연지리와 경제지리 및 지도 교육의 강조는 북한 지리학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구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의 지리교육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계통지리 부분의 서술을 비교할 때, 남한과 북한 교과서 사이의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지만, 남한 교과서는 북한 교과서

에 없는 취락과 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리고 북한 교과서는 남한에 없는 호수, 온천, 약수를 포함하는 점 그리고 장을 설정하여 경제지리를 강조한 점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한국지리의 기술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구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한 교과서는 대체로 관습과 행정구역에 따라 중부, 남부, 북부 지방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교과서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아울러 오랜 전통을 고려하여 5개 지방 즉, 서북지방, 동북지방, 중부지방, 서남지방, 동남지방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한 교과서에서는 휴전선이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의 실질적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교과서에서는 지역 구분의 경계로 휴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교과서의 중부지방은 황해도, 강원도, 서울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 교과서의 중부지방은 서울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포함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 기술을 살펴보면 남한 지리 교과서의 경우 북한 지리 교과서에 비해 남한지방보다 북한 지방의 내용이 자세하지 못하며, 분량도 적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의 경우 남한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한 기술 내용이 많고, 최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교과서의 남한에 대한 기술은 환경 오염, 도시화의 역기능, 산업의 낙후 등 부정적인 면을 크게 부각시키고, 또한 반미, 반일, 반정부, 자본과 기술의 대미 또는 대일 의존 등 정치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순수한 지리 내용이 극히 적다.

남한과 북한의 세계지리 기술 부분을 살펴보면, 남한 교과서의 경우 지역구분을 기후, 문화, 산업 등의 복합성을 기초로 하는데 반하여, 북한 교과서의 경우는 우선 관습적인 대륙 구분을 한 다음, 특별한 지역 기준 없이 위치에 따라 동부, 서부, 중부, 남부, 북부로 차하위지역구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같은 지역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소속 국가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대륙 이하 내용의 기술에서 전체 대륙의 개관으로 자연지리적 특징과 주민과 경제가 기술되고, 이어서 대륙 내 각 지역의 자연지리 및 경제의 특성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들이 기술된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지리 용어는 순우리말,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고, 남한의 지리 용어에 비하여 순우리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외래어 표기에서는 남한의 경우 국가명과 지명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 러시아식 발음 또는 해당하는 국가의 발음에 가깝게 병기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다가올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리 교과서의 체계와 지리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지리학자와 지리교육자 간의 폭넓은 정보 교류와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註

- 1) 머리말은 북한의 1학년용 지리 교과서에만 실려 있고, 2, 3, 4, 5학년용에는 실려 있지 않다.
- 2) 여기서 紅은 혁명관과 계급관이 바로 선 공산주의적 인간의 형성을, 專은 기술자, 전문가의 양성을 말한다.

### 文 獻

강환웅, 2002, 북한 지리교과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중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교육인적자원부편, 2001, 북한지리교육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수·학습자료 개발연구.  
 남상준, 1993, 북한 지리교육의 정향, 사회과교육, 26, 150-160.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노석구, 1995, 남북한 초·중등과학교과서의 화학 내용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손용택, 1993, 북한의 「조선지리」교과서 내용분석, 사회과교육, 26, 168-181.

이양우, 1993, 북한의 지리교육: 남북한지리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회과교육 26, 129-149.  
 최석진 외, 1996, 남북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석진 외, 1997, 남북한 중등학교 지리과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1995,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모형개발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80-195.  
 한봉희, 1993, 북한의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 사회과교육 26, 161-167.

#### <남한 지리교과서>

김주환·최석진·권동희·홍현철, 1995, 공통사회(하), 교학사, 서울.  
 김주환·최석진·권동희·홍현철, 1995, 세계지리, 교학사, 서울.

#### <북한 지리교과서>

임경승·차용걸, 1995, 고등중학교 「지리 1」,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진창훈, 1995, 고등중학교 「지리 2」,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박광철·진영군, 1995, 고등중학교 「지리 3」,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송일룡·진영군, 1995, 고등중학교 「지리 4」,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조석형·문영빈·한태식·장인규, 1995, 고등중학교 「지리 5」,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접수 : 2002. 11. 29, 채택 : 2003. 3. 20)